

제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조선 시대의 경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경연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경연이란 조선 시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선현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연은 대부분 편전에서 행해졌는데,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왕을 가르치는 경연관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겸임 관원과 전임 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과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의정부나 승정원의 일을 하며 경연관의 일도 함께 하는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죠.

한편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는데, 경연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했죠. 조선 시대 국왕 교육의 전담 기관이 홍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문관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홍문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경복궁의 배치도예요. 편전과 홍문관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겠죠?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청들은 대궐 밖에 있었지만 홍문관만큼은 대궐 편전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그것은 왕이 한밤중에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리들을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왕과 함께 밤낮없이 공부해야 했죠.

경연은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교재로 하는 강독과 이와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이 먼저 경전을 읽고 나면 왕이 따라서 읽었고, 이어서 경연관이 경전의 뜻을 설명하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돌아가며 그 뜻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전의 강독을 끝내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강독한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왕과 경연관들은 각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연의 과정에서 왕은 유학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었고 신하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경연은 학문의 탐구를 정치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왕과 양반 관료들은 많은 시간을 경연에 할애함으로써 유교적인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연에서 조선 시대 유교적 문치주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제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연에 대해 알고, 경연에 참여했던 왕과 관리들의 노력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며 설명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중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이와 관련한 시사적 문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경연'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연관의 구성]

 -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이나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음. ㉠
 -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으며, 홍문관의 관리를 선발할 때는 추천의 방식을 배제하였음. ㉡

[경연의 방식]

 -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과 왕이 차례로 경전을 읽은 후, 경전의 뜻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경연을 진행하였음. ㉢
 - 경전의 강독이 끝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토론하였음. ㉣

[경연의 의의]

 - 경연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우리 학교를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 촬영을 ㉠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서의 드라마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 학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예상 시청자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홍보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클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촬영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것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학교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쓰일 만큼 아름답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촬영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라마에서 학교나 학생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이미지 [A]로 연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공개하였는데, 사제 간의 정을 소재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인근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 촬영 때문에 소란스러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일부 학생들은 촬영을 구경하느라 수업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촬영 도중에 촬영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촬영을 허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촬영 관계자와 구경꾼 등 많은 외부인들, 그리고 촬영 관련 차량까지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훼손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 측과 함께 살펴본 촬영 일정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는 주말에만 촬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주말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드라마 방영 후에 학교가 유명세를 타면 평일에도 학교를 찾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이 주말에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의 학습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촬영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상대의 생각에 일부 동의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사용한 어휘의 개념을 확인하고,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학교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촬영 일정이 변경되면 평일에도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촬영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 **주제**: 주택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자.
- **글의 구성**
 - 1문단: 주택 화재 발생 실태 및 피해의 심각성 ㉓
 - 2문단: 주택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가 심각한 이유 ... ㉔
 - 3문단: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그 한계 ㉕
 - 4문단: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주민들의 실천 방안 ㉖
 - 5문단: 주민들의 실천 촉구 ㉗

초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의 발생 건수가 1/5 정도 차지한다. 그런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이다. 이는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㉑ 피해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화재는 누전, 전기용품의 부주의한 취급 등의 전기적 요인과 담뱃불, 방화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시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건물 간의 간격도 좁아서 인근 건물로 화재가 ㉒ 확충되기 쉽다. 또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심야나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에 정부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른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이는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㉓ 했다면, 건물 사이의 일정한 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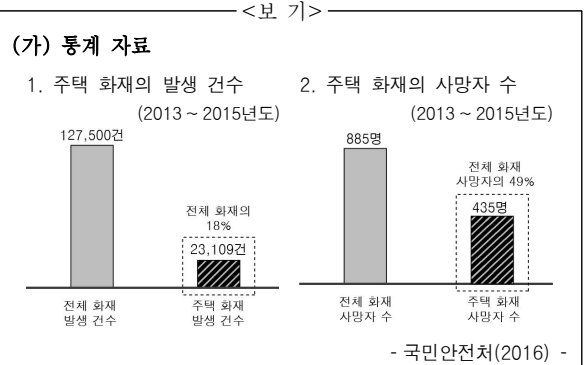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 주민들은 우선 정부의 법령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힌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 시설 관련 안전 교육을 통해 전열기나 난방기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웃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담뱃불이나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㉔ 지정되어진 기초 소방 시설 외에도 누전 경보기, 피난 사다리 등의 다양한 시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화재는 우리의 보금 자리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 ㉕ 그런데 우리를 각자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6. ㉓ ~ ㉕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㉓ ② ㉔ ③ ㉕ ④ ㉖ ⑤ ㉗

7.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 신문 기사

미국은 법령에 따라 1977년부터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96%의 주택에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택 화재 사망자는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은 1991년부터 이를 시행해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2011년에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해서 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형 화재 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소방관과의 인터뷰

작년에 발생한 주택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36%, 담뱃불이 23%, 방화가 17%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도 가스 사고, 불장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죠. 또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심야나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취침 중인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가 늦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라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요 화재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보완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이유를 둘째 단락에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 ⑤ (가)와 (나)를 활용하여, 주택 화재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제한한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피해로'로 고쳐야겠어.
 - ②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확산되기'로 고쳐야겠어.
 - ③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했으며'로 고쳐야겠어.
 - ④ ㉣: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지정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쳐야겠어.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힘없이 음악실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악기를 연주한다는 생각에 들떠 음악 시간을 몹시 기다렸겠지만 내 발걸음은 그저 무겁기만 했다. 입시를 앞두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런 고민을 하며 나는 음악실로 들어가 악보를 펴고 자리에 앉았다.

연주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성적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악보의 쉼표가 눈에 들어와 잠시 연주를 멈추었다. 문득 그 쉼표가 멈춰 있는 현재의 내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합주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악보의 쉼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 “쉼표는 매우 중요하다. 쉼표가 있기에 숨을 고르고, 다음 곡조로 나아가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쉼표가 없이 계속 연주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제대로 완주하기는 어렵겠지. 음표대로 연주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표에 맞춰 숨을 잘 고르는 것도 곡을 완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단다.”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쉼표를 보고 느꼈던 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렇다. 한 곡이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음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쉼표가 있기에 새로운 곡조로 연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곡이 아름답게 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쉽이런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성장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A] ㉠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쉼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대비하고 있다.
 - ② 쉼표의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함으로써 성공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쉼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적 의미를 제시하고 그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 ④ 쉼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성장과 관련한 자신의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쉼표를 보고 느낀 복잡한 감정을 구체적인 경험들과 연결하여 실패의 긍정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10. ㉠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것.
- 특정한 경우를 가정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앞으로 남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좀 더 한다면, 나의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
- ② 내가 지금처럼 계속 좌절해 있기만 한다면, 나는 훗날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③ 나는 내가 지금 멈춰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보석처럼 빛날 아름다운 나의 내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 ④ 앞으로는 정제되어 있는 시간도 소중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 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쉽은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고, 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꽃밭[꽌뵻]'은 교체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꽃잎[꽌뵻]'은 교체와 첨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

- ① 꺾다[까따] ② 막일[망닐] ③ 색연필[생년필]
- ④ 값하다[가파다] ⑤ 설익다[설릭따]

12.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두 개의 홀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 때, 두 홀문장 중 한 문장에서 특정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홀문장 ㉠, ㉡을 하나의 겹문장 ㉢으로 만든 예인데요, ㉢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철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였다.
 +
 ㉡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 철수가 산책을 한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학 생 : _____ [A]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③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④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⑤ ㉠이 ㉡에 명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낀,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A]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도 존재한다.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 (대화 중) “들어가요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14.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물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 ②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③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 ④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⑤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나랏 말쌈미 中國國語에 달아 文文字字와로 서르 스뵈디 아니홀썻 이런 견초로 어린 百百姓성이 ㉡ 니르고져 훈 ㉢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 피디 물훈 노미 하니라 내 ㉤ 이룰 爲嵬햐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字를 ㅁᄃ노니 사름마다 ㅁ햐 수비 니겨 날로 ㅁ뵈 ㅁ뵈안한키 ㅎ고져 ㅎ ㅅᄃ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의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군.
- ③ ㉢의 ‘ㅣ’는 주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과 현대 국어의 ‘피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 ⑤ ㉤의 ‘룰’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써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써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

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으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 ① (가):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참변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손해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지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증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능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조 광해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군대를 청한다. 요동 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덕에 살아남아, 건주(建州)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몹시 그리워 목숨을 걸고 탈출해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신사년(辛巳年, 1641) 봄에 청나라가 금주(錦州)를 공격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조선 군대가 금주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하고자 하여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나서고, 여덟 명의 고산대장(高山大將) 또한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금주성을 에워쌌다. 고산대장이 매번 사자(使者)를 조선군 진중(陣中)에 보내니 유림이 사자 대접하는 일을 영철에게 맡겼다. 한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 청나라 장수가 영철을 한참 보더니

“내 너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소신(小臣), 장군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청나라 장수가 노하여 말하되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에 영철이 청나라 장수를 자세히 보니 옛적 건주에 있을 때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라나(阿羅那) 장군이었다.

“이놈아 듣거라! 내가 네게 세 번의 큰 은혜를 베풀었노라.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요,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며, 건주의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 셋이니,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그 하나요,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것이 그 둘이요,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친 것이 그 셋이다. 나는 네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천리마 세 필을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도 원통하다. 내 이제 다행히 너를 만났으니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A]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공(主公),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사옵니다. 그건 한족(漢族) 놈들이 한 것이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아홉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제가 건주의 살림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어찌 제 본심이었겠습니까? 몇 년 전 장군의 조카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살피 용서하여 주소서.”

[B]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한 마리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치 못하리라.”

영철이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아라나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하기를

“장군, 이 자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의 몸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니 공께서 호생(好生)하는 덕을 보전하소서.”

그러고는 세남초(細南草) 이백 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이때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다.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여 허락하였다.

(중략)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림이 영철에게 말하되

“네가 금주에서 아라나에게 잡혀갈 때 세남초 이백 근으로 네 몸값을 치러 너를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니라. 이제 각 진영에서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호조(戶曹)에 바쳐야 하는데 세남초값은 네가 갚도록 하거라.”

영철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軍門)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을 아니 갚지는 못할 것이니라.”

“장군,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장군에게 달렸으니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

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림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려두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호조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 값을 재촉하였다. 호조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 현령은 영철의 일가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중 한 명이 분개하여 말하되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종군(從軍)하면서 들인 노고(勞苦)와 세운 공(功)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보상조차 주는 일 없고 도리어 이렇게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나?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나?”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호조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충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하리오.

- 홍세태, 「김영철전(金英哲傳)」-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림은 아라나를 설득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 ② 영철은 조선군으로 출정하여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 ③ 영철은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림에게 세남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 ④ 영철이 청노새를 유림에게 팔지 않자 유림은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 ⑤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

22.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요동 출병을 요청했을 당시,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출병을 주장했지만, 실제 참전한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명분이 아닌 현실이었다. 작가는 「김영철전」을 통해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런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라를 위해 종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값’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종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소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눈앞에 쥐가 나타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마도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이다. 왜 그럴까? 쥐를 본 시각 정보는 가장 먼저 뇌에 있는 시상으로 전송되고, 시상에 전송된 정보는 편도체와 시각피질로 각각 전달된다. 그런데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편도체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각피질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는 비명부터 먼저 지르게 된다. 이처럼 편도체는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혈류로 유입된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인 박출량도 증가한다. 또한 호흡 속도가 빨라져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와 열량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몸은 공포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 수와 박출량을 무리하게 늘린다. 이처럼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 수가 떨어진다.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순간적으로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실신하기도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공포는 학습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편도체는 공포 학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을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자극과 연합하는 과정이 바로 공포 조건화인데, 버몬트 대학의 교수 ① 카프는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을 제시했을 경우 토끼가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토끼의 발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고,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건화된 토끼는 전기 자극을 단독으로 제시했을 때처럼, 그 특정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토끼가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특정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심장 박동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편도체가 반응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편도체가 손상된 토끼의 경우에는 공포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릴 경우 편도체가 포함된 양쪽 측두엽 부위가 칼슘 침착에 의해 그 기능이 상실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포 극복 방안과 사례
-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②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
- 편도체의 기능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중심으로
- ③ 공포 조건화 연구와 그 의미
-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 연합을 중심으로
- ④ 생존 본능에 따른 생리적 변화
- 호르몬이 교감신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⑤ 자극 강도에 따른 공포 상황의 분류
-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박출량은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다.
- ②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 수가 낮아진다.
- ③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이다.
- ④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신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 ⑤ 공포 상황에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질문: 만약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① 공포 자극이 편도체로 전달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 ②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에 공급되는 열량을 감소시킨다.
- ③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자극을 과도하게 받게 된다.
- ④ 맥박 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진다.
- ⑤ 측두엽 부위에 칼슘이 침착됨에 따라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7. ㉠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용한 **특정 소리**와 **전기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건화되기 전에 토끼에게 들려준 특정 소리는 무조건자극이다.
- ② 조건화되기 전에는 특정 소리만 제시해도 토끼의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진다.
- ③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특정 소리가 없으면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
- ④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편도체가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 ⑤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편도체가 반응한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죽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움죽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너!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건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 1」 -

* 별목 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자로 표현한 것임.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A]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쌓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B]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C]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D]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E]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감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

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잡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짖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듯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터'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찢어버린
때묻은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얽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꾀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커피의 상표.
* 체전부: 우편배달부.
* 한난계: 온도계.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걸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걸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0.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복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앓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러’우며 ‘자랑’ 없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1.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격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석간’ 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배짱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었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애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디.”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요? 궐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으는 기 백 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니까.”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추기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저러앉았을 까라. 백릿길을 강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

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강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강운기를.”

“강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강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중략)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텅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향상, 생활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름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 강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빠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지던 건 옛날 말이다. ㉡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 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지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 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 일실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갚니야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

[A]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면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싣러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3.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계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 서로 도와가며 농사지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 ③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싯적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5. [꺠기대회]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 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 ④ 대답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⑤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3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 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 증권을 일컫는 금융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한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개인과 금융 기관 간에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매년 5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첫해의 이자는 50만 원이나, 다음 해는 첫해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에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진다.

[가]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 금리라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합계는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이면 원리금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금리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변한다.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 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변동 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또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 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합의를 우선시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몇 가지 ㉣요의

할 점이 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이자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자 지급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둘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모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 줄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을 인적 담보라 하고, 빚 대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 한다. 물적 담보는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셋째, 돈을 갚을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돈을 갚기로 한 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직접 만나 갚기로 할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갚지 못한다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이나 유가 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할 경우 그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상환 시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이때 자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속적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먼저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가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는 없어진다. 이러한 제도로,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는 있었지만 선고를 받기 전까지 채무자와 그 주변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나며, 선고를 받은 후에도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금리의 개념과 방식을 언급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채무자를 위한 법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금리 변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 기관과의 금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 ⑤ 금리 결정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 간의 금융 거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출 기간에 기준 금리가 변하면 고정 금리의 금리도 변한다.
 - ②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으로 자산을 증대할 수 없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통화량이 조절되어 경기가 활성화된다.
 - ④ 공탁을 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만료되지만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 ⑤ 금융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는 여윌돈 1,000만 원을 2017년부터 예금하기로 하고 금융 상품 중 연 8% 단리 상품과 연 5% 복리 상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연 3%로 예측된다.

*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다.
- ②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겠다.
- ③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실질 금리는 5%라고 할 수 있겠다.
- ④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 그 해에 발생한 복리 상품의 이자는 1,05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겠다.
- 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실질 금리가 같겠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B에게 돈을 빌리고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채무자 A와 채권자 B는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원금은 지정 날짜에 만나서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

- ① A와 B가 인적 담보에 합의했다라도 B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A의 소유가 아니면 B는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이라도 물적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④ A와 B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이자 원칙에 따라 A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원금 상환 날짜에 B가 나타나지 않아도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A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빚이 면제된다.
- ②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 ⑤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선은 유교가 기간이 되는 도덕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 ② ㉡: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
- ③ ㉢: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 ④ ㉣: 장마 때에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그 나라는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시초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의 정형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連續體)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배 시가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A]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계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입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입이 해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느다
입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아버이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저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덜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饈)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藏)* 대하
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鵝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이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슴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데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물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라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남방 염천 :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염장 :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45.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하여 담겨 있군.
- ③ (다)의 '남방 염천 저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험이 나타나서군.
-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라'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